

◆ 國內外 情報 ◆

日 企業, 設備投資 3년 연속 감소 展望

— 前年比 5.3% 73년 이후 처음 ... 景氣부진 반영 —

매년 일본경제신문이 조사하고 있는 민간 설비투자 동향에 따르면 일본산업계(회답기업 1,133개사)의 설비투자가 금년에도 전년대비 5.3% 감소, 3년연속 전년실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설비투자액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73년 이후 처음이다.

비제조업(회답기업 429개사)은 3.3% 감소해 84년(4.6% 감소)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8.9% 감소하여 전년(17.3% 감소)에 비해 그 폭이 축소되었다.

비제조업의 설비투자액은 7조 9,918억엔으로 16개 업종중 저널, 광업, 육상운송을 제외하고 13개업종이 감소했다. 버블붕괴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업(68.4% 감소)과 건설업(28.1% 감소)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제조업(회답기업 704개사)의 설비투자액은 4조 1,522억엔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19.7% 감소), 93년(17.3% 감소)에 비해 축소된 것이어서 하향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 섬유, 의약품 및 수송기기 등 5개 업종의 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업계에서는 NEC가 미국시장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반도체, 컬러액정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약 10%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바도 전년에 비해 50억엔이 증가한 1,500억엔을 계획하고 있는 등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승용차 설비능력이 30% 정도 과잉되어 있으나 트럭업계에서 금년 10월 실시예정인 배기가스 규제강화에 대응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의 불황이 비제조업에도 폭넓게 확산되어 이 부문에서의 설비투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에서의 설비투자도 리스트럭처링(사업재 구축)관련 투자외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황시에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던 日本企業의 행태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미래산업이나 첨단산업 분야의 설비투자는 유지하고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해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어 설비투자 감소가 향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일본정부가 실시한 추가 종합경기대책이 얼마나 소비마인드를 진작시키느냐가 향후 기업의 설비투자나 경기의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4년도 設備投資 계획

(단위 : 개사, 千백만)

구 분	회 답 기 업	94년도 계획	93년 실적
전 산 업	1,133	12,144,094 (▲ 5.3%)	12,817,390 (▲ 7.6%)
(전 력 제 외)	1,122	8,029,424 (▲ 8.5%)	8,775,044 (▲ 14.2%)
제 조 업	704	4,152,230 (▲ 8.9%)	4,555,646 (▲ 17.3%)
비 제 조 업	429	7,991,864 (▲ 3.3%)	8,261,744 (▲ 1.3%)

臺灣, 對中투자 가속화 - 재벌중심 대형프로젝트 투자에 박차 -

대만기업들의 對중국투자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대만기업의 對中투자는 141억 달러로 홍콩에 이어 제2위를 차지했는데 최근들어 대만의 100대 기업중 60개 기업이 이미 중국에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식상장기업 가운데 40%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473억 NT달러에 달하는 對中투자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만의 對中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문기관 조사에 의하면 대만의 전통산업중 핸드백 업계의 80%, 신발업계의 90% 이상과 우산업계의 거의 100%가 중국으로 설비를 이전, 현지생산에 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만기업들의 對中 설비이전 및 생산확대로 말미암아 대기업은 원자재 및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가공을 위주로 한다거나 대기업이 내수를 주로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로 하던 기존의 산업 및 시장구조상의 분업체계에 일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만의 대기업들은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이른바 三不通정책에 따른 對中직수출금지로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부품을 자국기업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점차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해외투자는 대만 대기업들의 주요 경영 전략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중국은 대만 대기업들의 최우선 투자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만 대기업들은 기업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對中 투자시 투자규모나 형태 및 업종, 지역구조등에 있어 중소기업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만 대기업들의 對中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1천만달러를 상회했으며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수억달러에 이르기기도 했다.

對中투자형태도 각 기업들의 개별투자에서 대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투자기간 역시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일부 재벌기업들은 중국을 이미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영업기반으로 삼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본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실례로 석유화학부문에서 臺塑, 東帝士, 奇美, 李長榮化學, 聯華實業, 華塑, 臺南紡織, 臺中精機, 廣豐實業 등의 재벌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臺塑의 長江계획(총투자 20억美달), 東帝士의 四川 정유공장 설립계획(20億元 규모)등의 프로젝트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시멘트 업종 가운데는 대만의 亞洲시멘트, 대만시멘트를 포함한 8개 상장 회사가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프로젝트를 통과시켰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裕隆, 羽田機械, 三富汽車 및 臺灣厚木工業 등의 재벌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투자했거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철강·전선·케이블 부문은 華榮, 友力, 東和鋼鐵, 和中華, 春源鋼鐵 등의 중견기업들이 對中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고무업종 가운데 대만내 10대 고무기업인 正新橡膠, 厚生, 建大工業 등 6개 업체가 이미 중국에 투자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통신 업종등의 기술집약형 대기업들도 중국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다. 聲寶, 大同, 東元電機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對中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자업종의 주식상장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회사의 이사회에서 對中투자사업안이 통과돼 추진중이다.

식품업종 가운데는 統一, 味全, 福壽등 10여개 주요 대기업 및 재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고 특히 統一그룹은 對중국 최대 투자자로 꼽히고 있다.

섬유업종 가운데 다수의 사양기업들이 중국으로 설비를 이전한데 이어 섬유 원·부자재 및 의류업종도 중국으로 설비 이전을 서두르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업의 對中투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이 주력업종인 일부 대기업들의 對中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가 주업종이 아닌 다른 재벌기업들도 서비스업종에 까지 對中투자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투자지역별로는 장기적인 시장개척전략하에서 과거의 특정 단일지역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정거점을 중심으로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투자전력을 구사함으로써 향후 시장유통망을 사전구축하고 있다.

대만 대기업들은 廣東省, 福建省 등 기존의 주대상지역인 화남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양자강 삼각주 및 발해만 지역등 경제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투자중점지역을 이동하고 있다.

콜롬비아, 自動車 배터리 輸入 증가

— 中級·中價品수요 확대추세 —

콜롬비아의 자동차용 배터리 수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중급·중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약 57개의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생산량이 90년의 75만개 수준에서 92년에는 90만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재고품이 약 12%, 수입량 2만개로 92년 기준 총수요는 80만개로 추산되고 있다.

콜롬비아의 배터리 수입실적은 92년에 92만달러를 기록,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93년엔 자동차 시장개방 여파로 빠르게 늘어났다.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수입관세는 CIF의 5%가 부과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CIF+관세의 14% 부과된다.

수입품중 日本・獨逸・美國産의 품질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50~70달러 수준인데 비해 수입품은 100~700달러로 가격차가 심해 국내 생산품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수입품 중에는 베네수엘라산의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콜롬비아 생산품 품질에서 수입품과 현격한 차가 나는데 耐久性的의 경우 국제수준의 평균 수명 5년에 못미치고 약 2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예견되는 배터리의 수요증가에 대비, 국내생산회사들이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국내생산품의 경우 대규모 제조업체는 자체 대리점망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는 직판체제로 판매하여 수입상의 경우 독점적 대리점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한국산은 직접 수입된 실적이 전무하나 파나마를 경유한 수입이 92년부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품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고가·고품질, 저가·저품질로 양분되어 있는 콜롬비아 시장 특성에 비추어 특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에 따른 품질향상과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인하로 중급·중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중급·중가품의 신규 수요를 겨냥한 마케팅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중급·중가품의 특성을 부각하는 홍보를 통해 브랜드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업체의 콜롬비아에 대한 직접적 상표홍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정 대리점을 통해 상표를 홍보토록하고 대리점에 대해서는 홍보 투자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의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 乾電池 輸入 증가 - 有力에이저트 選定 진출을 -

코스타리카 건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韓國産 브랜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동차용 브랜드는 호평을 받고 있어 이러한 브랜드 지명도를 이용하면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의 연간 건전지 생산량은 92년에 1,100만달러 였으며 93년엔 1,2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타리카의 유일한 제조업체인 Panasonic de Costa Rica S.A.는 UM(Size D), UM-2(Size C), UM-C(Size AA) 유형만을 생산하고 기타 유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 본사의 허가하에 제조된 제품을 National Panasonic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생산이 연간 11%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93년에도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잘 인식되어 왔고 지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생산량의 63%를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 시장동향

(단위 : 천달러)

구 분	1991	1992	93.1~6
국 내 생 산	9,910	11,000	6,000
수 입	1,643	1,844	983
수 출	6,500	7,000	3,000
총 수 요	5,053	5,844	3,983

〈자료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94년 1월 통계〉

건전지 전체 수요량중 75% 정도는 일반형(망간 건전지)이며 나머지는 알칼라인·망간, 니켈·카드뮴 유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건전지 전체수요는 연간 600만달러 정도인데 68%는 국내생산으로, 32%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건전지의 연간 수입액은 92년에 180만달러, 93년엔 2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94년에는 건전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요 증가로 12%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공급국은 미국으로 92년에 68만7천달러를 공급해 37%의 시장을 점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50% 증가했다. 이는 좋은 품질, 신속한 딜리버리, 훌륭한 애프터서비스로 수입업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공급국은 과테말라로 90년 18만1천달러, 91년 36만6천달러, 92년 39만9천달러에 달해 시장점유율이 92년엔 21%로 높아졌다. 과테말라는 망간 건전지만 생산하는데 Ray-O-Vac 브랜드로 진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품질로 호평받고 있다.

제3의 공급국은 일본으로 92년에 31만달러를 수출, 17%를 차지했다. 알칼라인 건전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진출 브랜드는 National Panasonic, Sany 등으로 일반 망간 건전지는 현지의 Panasonic de Costa Rica에서 공급토록 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Eveready 브랜드로 현지 시장에 진출해 망간 건전지 유형 D(UM-1), C(UM-2), AA(UM-3), 9V(사각형)을 공급하고 있다. 콜롬비아도 Eveready 브랜드로 진출해 현지 제조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독일은 Varta 브랜드로 진출해 알칼라인 건전지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호평을 받아 점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등 기타국가들은 소량의 건전지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손목시계나 전자계산기에 사용되는 소형 Silver oxide건전지를 공급하고 있다.

건전지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허가가 필요없다. 수입관세는 從價稅 14%(관세), 特消稅 10%, 附價稅 10% 등 총 39.04%이다.

유통구조는 현지 생산의 경우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도매업자에 다시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경로로 되어있다. 수입의 경우 전문 수입공급업자가 제품을 수입해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업체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력과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수요의 25%를 차지하는 알칼라인 건전지 시장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금력과 광범위한 판매망을 보유한 유능한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해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모델의 소량 주문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국 별	1991	1992	93.1~6
미 국	555	687	370
일 본	339	310	120
콜 롬 비 아	152	120	70
에 콰 도 르	160	200	80
과 테 말 라	366	399	255
독 일	50	100	50
한 국	0	0	5
기 타	21	28	63
총 계	1,643	1,844	983

<자료 :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러 엘렉트로실라, 발전기 수출 확대나서 - 최근 공기냉각식 발전기 선보여 -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전자엔지니어링 업체인 엘렉트로실라사는 자사제품인 발전기류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주식회사 형태로 개편작업을 마친데 이어 대외수출활동에 보다 적극 나서고 있다.

엘렉트로실라는 이미 상당량의 소형발전기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최대수출선은 중국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한해동안 對중국 발전기 수출실적은 메가와트기준 800메가와트에 이르고 있다.

엘렉트로실라는 멕시코로 부터 대규모 수력발전용 발전기 수출주문을 수주해 놓고 있다.

이 회사는 이와함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등 중동지역 고객들과도 수출상담을 벌이고 있다.

엘렉트로실라는 최근 개발한 공기냉각방식의 발전기가 높은 시장성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의 공기냉각방식 발전기는 전효율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 10~2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佛, 전자식 變速交流모터 인기 - 工場自動化用으로 人氣 -

최근 동력전자부품의 개발로 전자식 변속기에 직류모터대신 교류모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프랑스에서 공장자동화용으로 이 모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직류모터 사용시보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저렴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제품이 견고하다는 점등 직류모터보다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교류모터의 단점은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정확성이 떨어져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는데 다수업체들이 수십년전부터 전자식 변속기 시장 확장 추세를 내다보고 교류를 사용한 모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교류모터 사용에 큰 역할을 하는 동력부품인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라는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시키는데 전기 소모량이 극히 적어 원가절감에 큰 효과

를 가져오며,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달로 작동감시시스템과 작동중인 기기 사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 전자식 변속기 수요의 40%는 펌프작동이나 환기장치에, 나머지 40%는 컨베이어 조종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연간생산 5천만개에 달하는 교류모터중 10%만이 변속기에 사용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은 앞으로 이 분야의 시장확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Siemens, ABB, Telemecanique, Danfoss등 4개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화란의 Danfoss는 1968년부터 전자변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고객들에게 교류모터의 변속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AMA(Automatic Motor Adaptation system)의 개념은 시스템을 시동할 때 자동적으로 적합한 변수를 결정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연간 15만개의 전자변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의 Telemecanique는 단일 제품에 다양한 옵션을 제의해 고객들이 필요한 용도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가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변속기 생산이 필수불가결한 동력전자부품은 일본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업체들의 유럽진출 위협에 대해 Telemecanique측은 일본업체들은 유럽에 부품수출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완제품 판매는 하지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프랑스의 변속모터 수요동향

(단위 : 백만프랑)

종 류	1988	1989	1990	1991	1992
직류사용 변속모터	220	240	250	250	250
교류사용 변속모터	200	400	440	580	500

日, 環境관리 認證기관 설립 - 日전기공업회 ISO규격인증등 업무 -

일본전기공업회는 전기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인증기관을 오는 10월까지 설립키로 결정, 곧 설립준비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 기관 설립은 금년말 제정이 예정돼 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환경감사규격(ISO 18000 시리즈)의 인증 및 컨설팅업무등을 취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전기 공업회는 지금까지 ISO의 규격제정 및 각국의 환경관리체제 구축 움직임에 대처, 유력 메이커 10社로 구성된 환경감사 검토위원회를 설치, 공업회로서의 대응책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개인이나 1개 기업보다도 업체단체에 의한 인증기관 쪽이 실적도 있고 신뢰성도 높으며 업계 사정에도 밝기 때문에 수속 및 실사를 원활히 할 수 있고 경비도 절감되는등 이점이 많아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 의거, 조만간 인증기관설립준비실을 발족시켜 오는 10월까지 이 기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 준비실은 인증기관의 조직·업무내용·인원계획등을 마련하는 동시 대상이 되는 사업소 수, 자금 및 운영경비등을 추산, 설립되는 인증기관에 인계하게 된다.

현재 설립될 인증기관은 ISO가 제정하는 환경감사규격에 준해 기업들이 내놓는 '환경성명서'에 의거한 검증과 인증업무, 인증서 발행, 관련분야의 컨설팅 활동, 환경 성명서 작성지원, 관련인력의 교육 사업등이 주요 업무로 예정돼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각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91년 IEC(국제전기표준회)와 ISO가 SAGE(환경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환경보호대책의 규격작성에 나섰으며 그후 그 작업은 ISO의 전문위원회(TC207)로 이관, 현재 산하에 6개 분과회, 1개 워킹 그룹이 설치돼 각각의 테마에 의거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관리시스템분과회와 환경감사분과회는 금년말까지 규격마련에 나서며 이어 내년 6월까지 각국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승인후엔 각국이 민간 인정기관을 설치, 산하에 복수의 교육기관, 인증기관을 설립토록 돼 있다. 교육기관에선 '공인환경인증인'을 육성, 인증기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취하게 된다.

현재 국제적인 품질관리규격이 된 ISO 9000시리즈와 관련,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기술을 갖고 있지만 ISO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내 인증기관 설립, 인증인의 육성에 뒤지고 있어 초기 단계엔 인증취득을 위해 코스트나 시간면에서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이번 환경관리 및 감사와 관련해서 통산성·경단련이 각 업계가 독자적으로 인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일본전기공업회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의 일부 회원기업과도 제휴기로 했다.

電線용 합성수지 需要증가세 - CATV特需힘입어 매년 신장세 꾸준 -

CATV등의 特需에 힘입어 전선 피복재료로 사용되는 PVC, PE등 합성수지 수요가 증가세에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선재료는 도전재료와 피복재료로 구분되는데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피복재료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중 PVC 사용량을 보면 88년 4만1400톤, 91년 4만8천톤으로 증가한데 이어 92년 5만4천톤, 작년 6만톤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절연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PVC, PP, PE, 나일론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PVC는 주로 600V 이하 전선에 주로 사용되며 PP는 절연체와 도체사이의 공간, 나일론은 특수전선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선류의 소재중 합성수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선의 고급화에 따라 합성수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내수 비중이 90%선에 이르는 전선산업은 한국통신 및 한전등의 관납물량이 총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의 영향이 작으며 자재중 전기동이 전선 재료비의 60%를 차지, 전기동의 가격변동이 전선업체의 수익을 좌우하고 있다.

전선업체들은 지금까지 사용돼온 나일론등 섬유소재를 합성수지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선산업은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도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수지 업계는 합성수지가 공급과잉인데다 전선업체의 가동률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물량증가에 비해 수익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술개발비 80억 無償 지원 — 國民銀 70개 과제선정 ... 申請접수 —

국민은행은 올해 기술개발연구비 무상지원사업을 70개 기술개발과제, 80억원으로 확정하고 중소기업들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는 첨단요소기술, 핵심선도기술, 신소재·부품개발등 기술집약형기술, 주물 금형열처리 계량기술등 산업기반기술등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 150인 이하 또는 총자산 5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공학관련 서비스업체,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관련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민은행 중소기업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연중 수시로 신청을 접수, 분기별로 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를 심의·선정, 총 연구비의 80%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 사업을 지난 91년부터 시작, 93년까지 3년간 총 178개 과제에 대해 198억원 지원했으며 현재 48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종결돼 사업화가 진행됨으로써 앞으로 5년간 6900억원의 매출 증대와 8억5천만달러의 수입대체·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産銀, 기술개발지원팀 신설 안내

한국산업은행에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기술개발이 국가생존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첨단산업 및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기술개발지원팀에서는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계획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절차의 대폭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상공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국산화 촉진·생산성향상·원가절감·국제수지개선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용하는 업체
 - 국내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최초 기업화
 - 연구시설의 건설과 연구개발용 기구·기자재 등의 구입
 - 기술인력 훈련시설의 건설
 - 산업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내 용역업자에 지급한 기술용역비
 - 신제품·신기술개발·생산성향상·품질개선·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및 위탁연구 개발비
 - 기술도입 및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비
3.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상공자원부가 고시하는 생산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조합
5. 상공자원부가 지원하는 「공업발전기금」 대출실수요자로 추천을 받은 업체
6. 체신부가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대출실수요자로 추천을 받은 업체

문의처 { Tel. (02) 398-6419, 6425
 FAX. (02) 738-4605

〈'94년도 생산기술개발자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 안내〉

구 분	생산기술개발자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지 원 공 고	2/16자 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4-15호)	2/2자 체신부 공고 (제 1994-15호)
신 청 서 교 부 기 간	2/26~3/18	2/7~3/10
신 청 서 접 수 기 간	3/14~3/18	2/14~3/10
접 수 처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용 자 취 급 기 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외

「품질대학」 운영계획 안내

공업진흥청에서는 「품질의 해」를 맞아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품질의식 교육을 강화시키고 품질혁신을 가속화하느로서 UR협상타결로 본격화된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품질대학」을 운영하오니 최고경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개 강 : '94. 3. 3부터 매주 목요일 14:00~17:00
2. 장 소 : 공업진흥청 중강당 (1층)
3. 교육시간 및 내용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강 사
14:00~14:10	10분	격 려 사	장 관
14:10~14:50	40분	개강인사 및 품질경영 시책방향	공 업 진 흥 청 장
15:00~15:50	50분	의식개혁 및 품질경영 추진요령	대 학 교 수
16:00~16:50	50분	품질경영 추진사례	기 업 체

4. 신청요령 : 해당 추진본부로 신청
5. 신청양식

() 월 품질대학 수강신청서

수강희망일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연락 책임자	전화번호

6.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
 - KS, 등급등 품질관련 각종 인허가 및 사후관리시 확인
 - 품질관련 정부 포상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7. 문 의 처 :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 (02) 503-7950~9